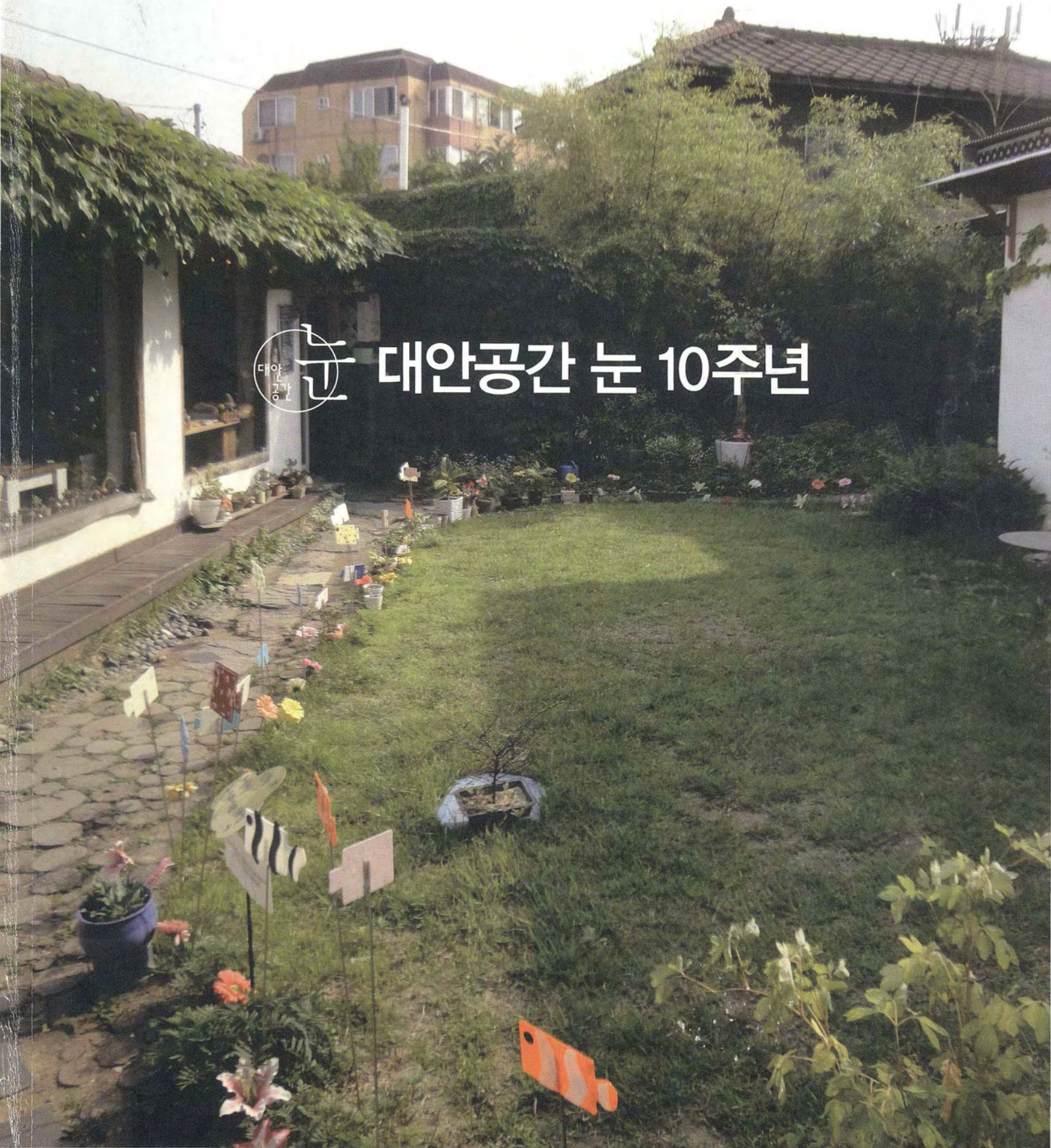




제6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대안공간 눈



대안공간 눈 10주년





김주희 개인전
〈추억, 그 기억의 잔상〉

김명아 개인전
〈사람 + 사람〉

한양대학교 미술관
미술실

한양대학교 미술관
미술실





Sanyo

2-5

公正集

대안공간눈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내다 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다.

2003년, 수원시 인구는 100만이 넘었는데 시각예술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행궁동은 세계문화유산 화성 안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화 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보상받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에서는 그럴만한 예산도 없었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이면서 작가였던 나는 늘 이 두 가지 문제를 작가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가족들과 협의하여 살고 있던 집을 전시공간으로 바꿔 마을을 변화시킬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결정했다.

젊고 실험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많은 젊은 작가들을 행궁동으로 불러들이고 작가, 주민, 관광객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골목을 변화시킨다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마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다행스럽게도 근거리에 위치한 작업실에 기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 살림살이를 옮기고 세입자가 이사 가기까지 1년을 기다려 2004년 3월 드디어 작업을 시작했다.

40여년전 부모님께서 재활용목재를 사용하여 직접 지으신 집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집이었다. 최대한 옛 것을 보존하면서 작가들이 전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지역에 대안공간이 생긴다는 자체가 작가들에게는 희망이었고 비빌 언덕이었기에 많은 작가들이 신이 나서 힘을 보탤 것 직접 힘든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오래되어 낡고 허름한 주거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작업 자체가 대안공간눈 실험 작업의 시작이었고, 행궁동 마을만들기의 시작이라 하겠다.

골목 안에 예술을 들여 놓다.

골목 안이라 작품을 반입하고 반출하기에 불편했지만, 매년 기획전시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을 골목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동안 50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골목 안에 예술을 들여 놓으니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찾았다. 입구에 자리한 식당 골목집은 전시 오픈 날 저녁이면 늘 북적였다. 불량청소년이 몰려다니며 담배 피고, 칩 빼고, 패싸움하던 골목, 사람이 피해 다니고 떠나가던 골목이 일부러 찾아오고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공간이 부담 없고 특별하니 많은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전시하기를 원했고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골목 안에 웬 전시 공간? 그것도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에 탄성했고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 사람들을 데려 오셨다. 숨어있는 골목까지 일부러 찾아오시는 관람객들 한 분 한 분이 참 고맙고 소중했다. 단 한명의 관람객이라도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렸고 일일이 메일 주소를 받아 소식을 보내 드렸다. 그 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후원자가 되어 함께 공간을 지키고 만들어 가고 있다.

대안공간눈은 지역 밀착형 문화소통공간이다.

신진작가 발굴 및 전시, 리뷰지원,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예술체험, 교육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외에 대안공간눈 잔디마당, 골목길, 다리밑, 건물 옥상, 경로당, 주민 센터 등 행궁동 곳곳에서는 다양한 재능기부 공연, 들썩들썩 골목난장, 옥상콘서트, 골목에서 영화제, 현대미술 쉽게 읽기, 텃마루 야단법석, 공공예술프로젝트, 찾아가는 미술관, 어르신 솜씨 발굴프로그램, 커뮤니티키친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사회봉사,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주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시로 진행된다.

행궁동 예술마을 만들기로 지역 활성화,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공간지원을 받으며 대안공간눈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의 결과물로 조성된 행궁동벽화골목은 파워 블로거들을 통해 전국에 홍보되어 많은 방송, 책자, 일간지 등에 소개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다. 수원화성, 행궁을 돌아보고 이제 마을 깊숙이 골목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등 맛집을 소개해 마을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했다.

2010년 행궁동 사람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만든 눈카페, 2011년부터 추진한 마을기업 행궁숨씨의 역할이 매우 크다. 마을에 머무는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수익은 마을에 재투자하며 벽화골목의 지속적인 보완과 탐방객의 재 탐방을 위한 모자이크벽화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민선5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 경제 활동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대안공간눈, 마을기업, 벽화골목 탐방은 재래시장, 타지역 사례와 연계한 주요 탐방코스가 되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면서 이웃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시민단체, 행정과의 역할분담 등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탐방객은 그동안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들을 위한 사례발표와 벽화골목 투어,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골목에서 사람의 가치를 배우고 재능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 쉽게 체험으로 배우는 인문학 프로그램도 수원시와 함께 연중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공모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미술대학 뿐 아니라, 건축과, 도시계획과, 조경과, 사회복지과, 관광개발학과 학생들의 탐방이 많아졌고, 석박사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을 위한 인터뷰도 일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레슬리 바셋 주한 미국 부대사, 일본 대학 교수들의 방문 등 외국인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생태교통수원 2013' 행사 기간에는 많은 외국대사와 수원시를 방문한 외국 손님들이 방문하셨다.

주민으로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수원시 차원에서 공방길을 조성하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미술관을 짓는 등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탄탄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집과 집을 연결하여 전시, 공연, 소모임 공간, 주거공간, 예술가와 후원인을 위한 방 등 소통, 실험공간을 확장하다.

대안공간눈 뒷집 사시는 부부가 찾아왔다. 오랜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팔고자 하는데 꼭 대안공간눈에서 샀으면 한다고.... 그래야 세월이 흘러도 아깝지 않다고.....

마을에 희망이 생기고 활성화 되자 마을을 떠나시려 했던 분들이 다시 마음을 돌리는 상황에 이 분들은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했다. 최근 행궁동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바로 사겠다는 분도 있는데, 뻔히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고마웠다.

그리고 2003년 대안공간눈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했던 때를 떠올렸다. 10년이 흘렀다.

나는 작품을 하듯 최선을 다해 일했다. 이웃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 같아 참 고마웠다.

방법을 모색하고 확장을 시도했다. 담장을 털고 전시공간부터 만들어 새로운 예술공간을 오픈했다.

앞으로 10년은 확장된 공간을 재생하고 가꾸며 더 많은 볼거리, 느낄거리, 체험꺼리를 생산하며 먼 훗날 행궁동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마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중심에 대안공간눈이 문 닫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기를....



대안공간눈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다. 02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페〉展 05

예술공간봄 개관기념
〈폭탄(Bomb)〉展 33

봄눈의 〈봄의 사계〉展 43

10주년 축하공연 44

대안공간눈 연혁 46

2014년 대안공간눈 전시일정 47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페〉展

기획 대안공간눈 (책임기획 : 이사라)

일시 2014년 6월 13일~7월 10일 / 12시~7시 (월요일 휴관)

장소 대안공간눈 1,2전시실, 원도우갤러리

지나온 10년을 회상하고 또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전은 10년간 대안공간눈에서 전시회를 갖은 작가의 작품, 그리고 앞으로 대안공간눈, 예술공간봄과 함께하고자 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안공간눈이 걸어온 10년의 과정을 읽어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1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하였다. 작가들에게 예술활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190여명의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의 작품을 마치 비빔밥처럼 전시장 가득 섞어 전시하고 관람객은 뷔페처럼 맘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구매함으로써 작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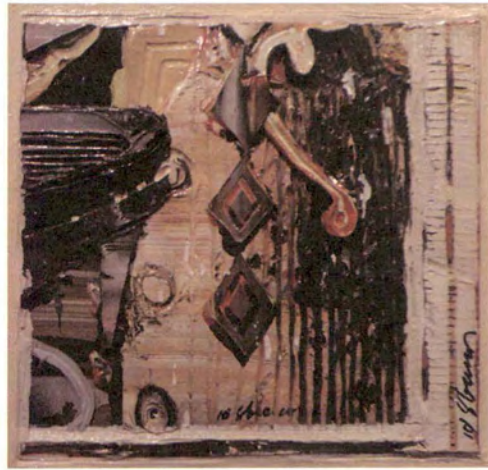
참여작가

가수정 · 강성원 · 강성희 · 강지웅 · 강현주 · 경수미 · 경홍수 · 고우리 · 공기평 · 공수경 · 권성택 · 권용택 · 권청자 · 김가빈 · 김경원 · 김교선 · 김근아 · 김나래 · 김나현 · 김명아 · 김미정 · 김민기 · 김민정 · 김민형 · 김범석 · 김석환 · 김성배 · 김성희 · 김소연 · 김수철 · 김순호 · 김연용 · 김영섭 · 김영화 · 김은영 · 김정열 · 김정환 · 김주영 · 김주희 · 김지숙 · 김필래 · 김학두 · 김해신 · 김호선 · 김희곤 · 남기성 · 남부희 · 남재현 · 노혜심 · 노병훈 · 명윤아 · 문정선 · 문혜성 · 민울 · 박경선 · 박규석 · 박근희 · 박김형준 · 박미영 · 박미화 · 박봉순 · 박성현 · 박수경 · 박순자 · 박신혜 · 박영복 · 박옥자 · 박요아 · 박용국 · 박용화 · 박정란 · 박종희 · 박지현 · 박태균 · 배미혜 · 배종오 · 백승혜 · 백예원 · 백현정 · 봄 · 눈 · 서병관 · 서영철 · 서정연 · 소수빈 · 손민광 · 손자희 · 손채수 · 손현선 · 송유건 · 송태화 · 시원상 · 신동선 · 신봉철 · 신승녀 · 신원삼 · 심희라 · 안순분 · 안예환 · 안재홍 · 엄수민 · 오수철 · 오영진 · 오은주 · 오은희 · 오혜련 · 우무길 · 이상호 · 유거상 · 유계희 · 유지숙 · 육경란 · 윤선미 · 윤희경 · 음현정 · 이강미 · 이강자 · 이건희 · 이남희 · 이다혜 · 이동은 · 이득현 · 이부강 · 이사라 · 이상미 · 이상미 · 이석기 · 이선열 · 이선옥 · 이성미 · 이신애 · 이영길 · 이오연 · 이우숙 · 이윤숙 · 이윤엽 · 이임경 · 이주영 · 이 하 · 이해균 · 이해경 · 임미령 · 임승희 · 임은빈 · 임종길 · 임준영 · 장선영 · 장세훈 · 장진영 · 장혜홍 · 전경선 · 전기옥 · 전병구 · 전성희 · 전 옥 · 전원길 · 전해정 · 정범연 · 정승국 · 정연지 · 정인희 · 정현희 · 정혜련 · 조덕상 · 조미예 · 조성훈 · 조수영 · 조영선 · 조윤정 · 조은정 · 조주연 · 주종수 · 지연신 · 차진환 · 천명철 · 초 이 · 최경락 · 최미아 · 최보람 · 최세경 · 최승일 · 최요한 · 최현식 · 탁신문 · 하정희 · 한 다 · 한상진 · 한순주 · 한태희 · 허병훈 · 홍근영 · 홍낙기 · 홍대의 · 홍형표 · 황보경 · 황은화 · 황희정





가수정 <Mustache man>, 53.0x45.5cm, oil on canvas, 2013



강성원 <평안하고 성스러운 정원>, 27.5x27.5cm, mixed media, 2010



강현주 <자물쇠>, 31x22cm, mixed media



강지웅 <Truth-Christ>, 10x8inch, water color & urethane on canvas, 2013



고수미 <꿈꾸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유명>, 12cm diameter, Mixed media on wood, 2009



강성희 <무제>, 20x26cm, drawing



경홍수 <자전거>



고우리 <피어나다>, 44.0x71.0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4



공기평 <지리산7-기억의 정원15>, 53.0x45.5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13



공수경 <the HABITUAL #a>, 28.5x28x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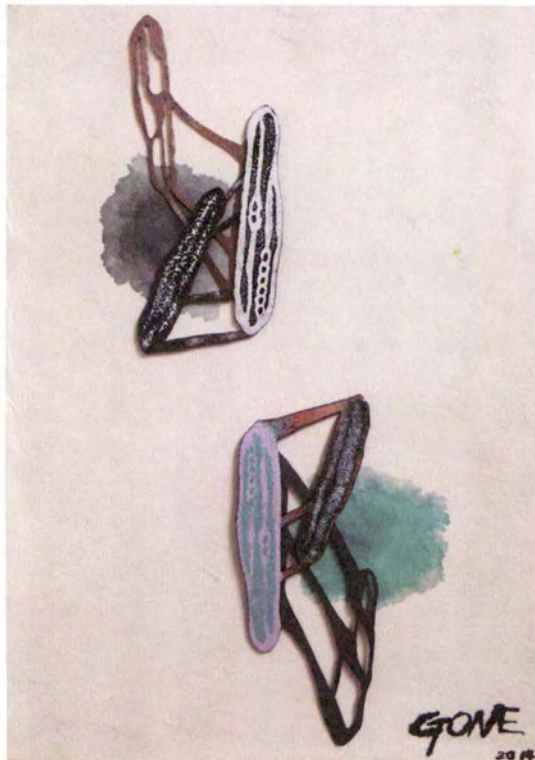
관청자 <휴2>, 34x55cm, 수묵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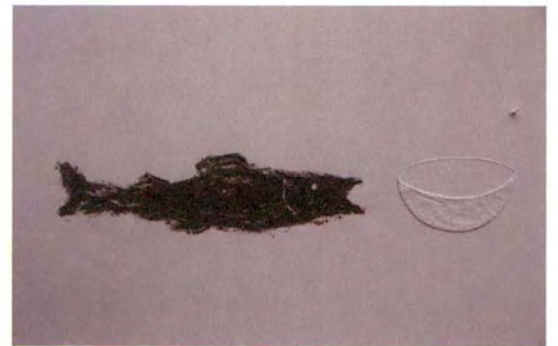
관성택 <인도소풍>, 75x70cm, mixed media, 2013



관용택 <한계령 2>, 32x16cm, 돌위에 아크릴, 2011



김경원 <같-다(같은생김새-다른성격)_기억의빛깔>, 2호, 동, 칠보, 한지, 2014



김기빈 <무제>, 27x19cm, 캔버스에 흙 · 아크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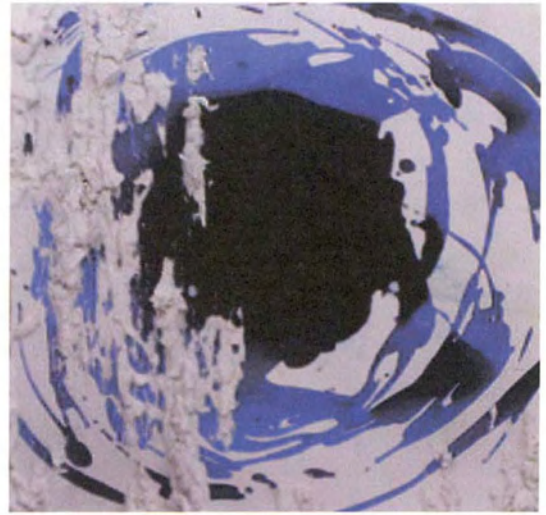
김교선 <Living-56>, 29.0x21.5cm, Acrylic on hard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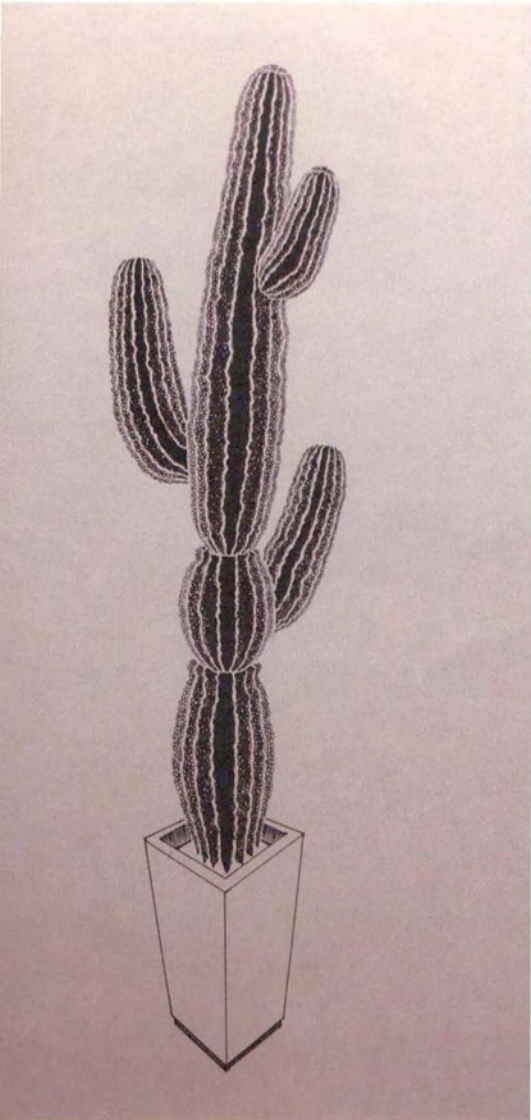
김근아 <Gentle Gingerman>, 29x41cm, 담배꽂초, 2013



김나래 <The sensitivity 2013(빨간 치아와 주황꽃수염 1/5)>, 21x30cm, specially pr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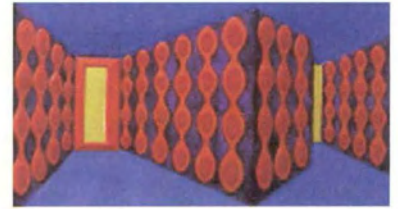
김나현 <whirlpool>, 25x25cm, mixed media on canvas, 2014



김민기 <무제>, 41x29cm, 2014



김민정 <Riposo dell'abero>, 20x20x10cm, Terracotta



김명아 <미로>, 55x32.5x5cm, Plaster, 2009



김민형 <뽕족구두(부츠)>, 20x20cm



김미정 <토끼씨와 사막여우>, 53.0x45.5cm, oil on canvas & wood, 2013



김성배 <스케치_카일라스>, 33x22cm, 종이, 혼합재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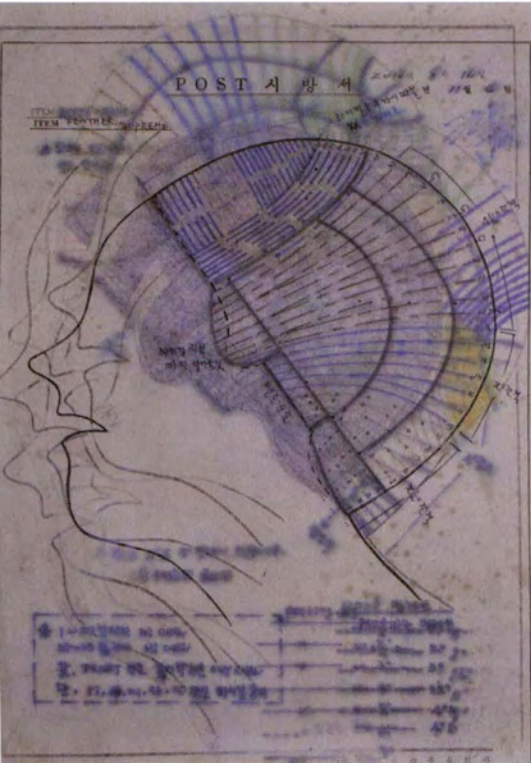
김소연 <Beta luna>, 35cm diameter, leather dye, acrylic colors on leather, 2013



김성희 <행복>, 41x31cm, watercolor, 2008



김범석 <나무>, 12x23cm, 복판에 먹, 2010



김수철 <POST HUMAN>, 23x32cm, 77년도가발시방서드로잉, 2014



김순호 <섬>



김연용 <inland_L0404 꿈꾸는 섬>, 60x40cm, pigment print on Art fabric



김석환 <명상>, Ø26x52, mixed media, 2014



김인섭 <노을>, 39x28cm, Oil on Hard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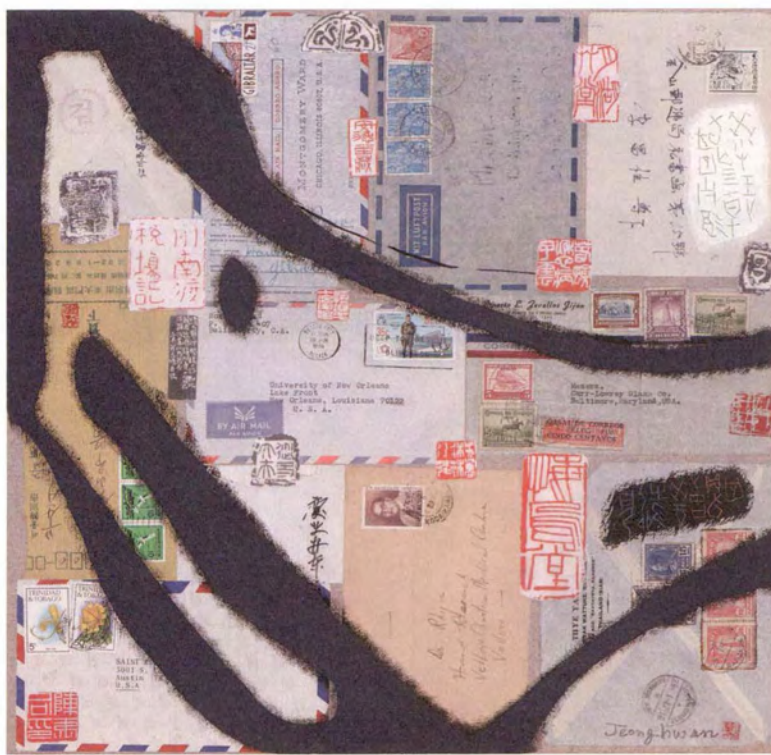
김명화 <여인>, 38x51cm, 종이, 연필, 2010



김은영 (visual field 3727), 53x45.5cm, acrylic, emery on canvas, 2013



김정열 <LOVE>, 42x59.4cm, 디지털 프린팅, 2014



김정환 <기억의 날인>, 41x41cm, 린넨 위에 사용된 편지봉투, 돌가루, 아크릴 혼합, 2013



김주영 <하와이 인상>, 23x13.5cm, 수채화, 2014



김주희 <석고상>, 31.8x40.9cm, Oil on canvas, 2009



김지숙 <여행>, 24x15.5cm



김필래 <무제>, 34x43x6cm, 고무, 2005



김학두 <봄매>, 4호, 2010



김혜신 <DREAM 일월오봉도>, 22.7x15.8cm, Acrylic on canvas, 2014



김희곤 <Hello! 아웅>, 33.3x24.2cm



남기성 <먼자-모니터Series #13>, 50x33.5cm, 2014



김호선 <당신의 기도로 피어난 꽃>, 24x24cm, mixed media



남부희 <목련을 바라보다>, 71x55cm, tape, photo on boxpaper, 2014



남재현 <집에서 핀 구름>, 60x60cm, 장지에 채색, 2013



문정선 <그들이 사는 세상>, 5호, 합판에 아크릴 및 혼합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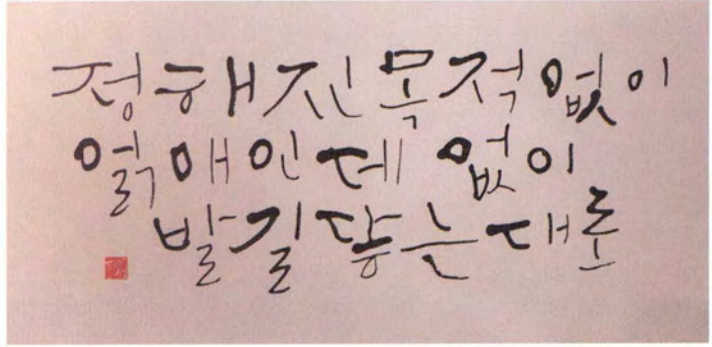
명윤아 <A Sweet Bicycle>, 21x30cm, Mixed Media and Pen on Paper, 2014



노혜심 <The Doll's>, 37.5x45.0cm, Oil on canva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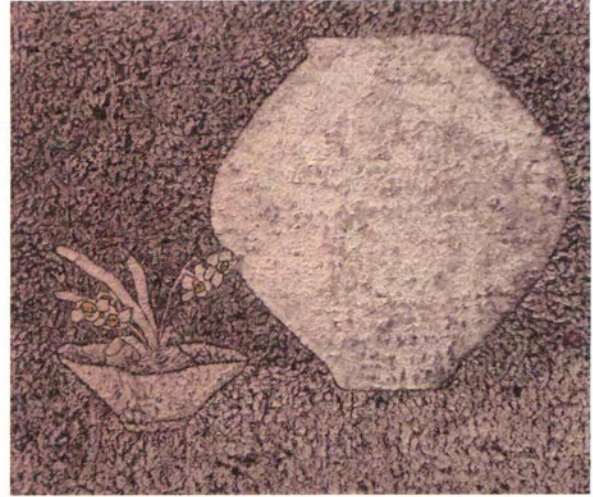
도병훈 <白竹(백죽)>, 26x34cm, 장지에 채색,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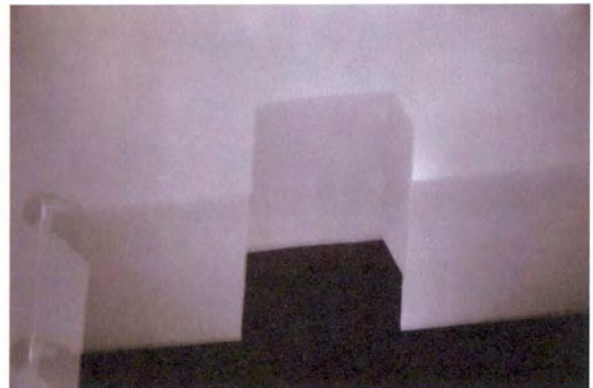
문혜성 <발길 닿는 대로>, 55x37cm, print on paper, 2013



민울 <나무의자-잎이 내는 파도소리>, 40.9x27.3cm, oil on canvas, 2014



박경선 <항아리수선>, 53x45.5cm, 한지, 먹,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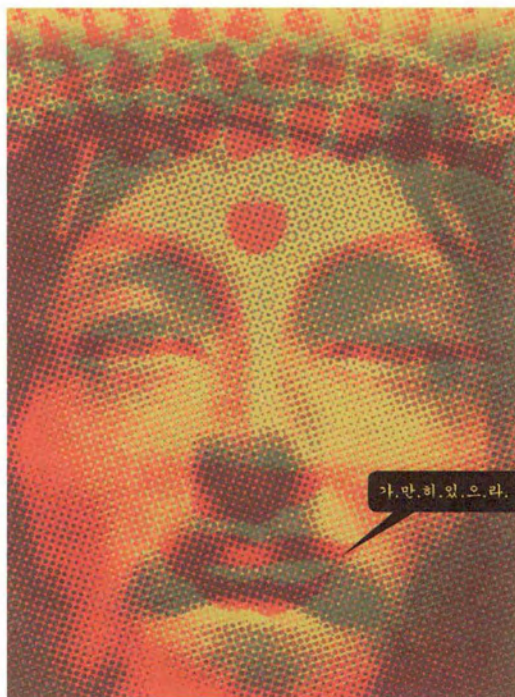
박규석 <빛, 소리-울림>, 32x23.5cm, 라이트페널



박근희 <노란장미>, 25.5x21cm, oil on canvas, 2014



박김형준 <색이 춤을 추더라_매향동_2013>, 54x36cm, photo



박미영 <Self-taming 1>, 35.5x50cm



박미화 <aggregation>, 53.0x33.3cm, Oilpastel on pannel, 2014



박성현 <목련이 필 때-4월의 찬가>, 40.9x24.2cm, oil on canvas, 2014



박봉순 <후리지아>, 6호, oil on canvas



박수경 <Sarahworld08-8>, 35x27cm, Digital photo & print



박순자 <Magic>, 45.5x53.0cm, oil on canvas, 2009



박용국 <정자>



박정란 <모란보자기>, 8호, 53x29cm



박옥자 <장미 思念圖>, 33x78cm, 선묘 수묵담채, 2014



박신혜 <wave>, 18x14cm, oil on canva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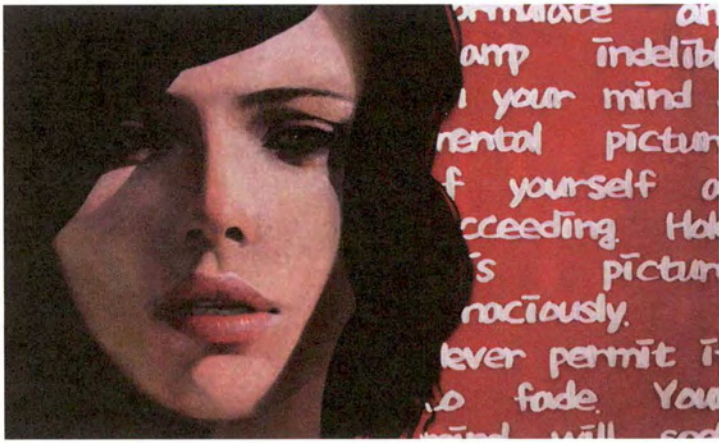
박영복 <일상일기>, 53.0x40.9cm, acrylic on canvas



박요아 <표장>, 32x43cm, 한지에 채색, 2014



박용화 <리얼 배트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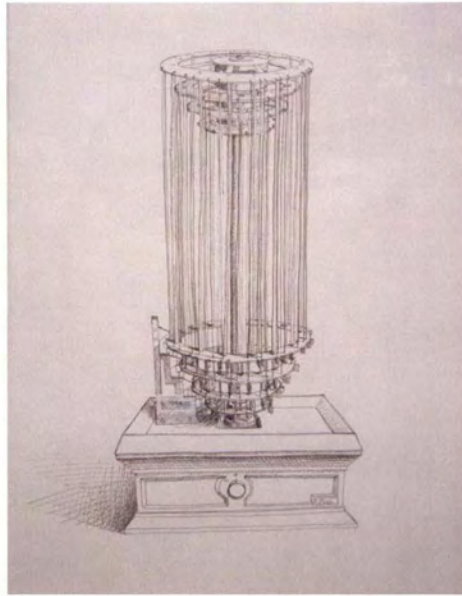
박종희 (Expression), 53,0x33,3cm, Oil on canvas, 2013



박지현 (빛무늬), 50x50cm, 한지, 채색, 2013



배미혜 (시작), 26,5x41cm, 유화, 2014



배종오 (Quartet), 33x45cm



백현정 (바람이 전하는 소식들을 들으며)



박태균 (◎ ㅂ), 50x50cm, acrylic on canvas, 2014



백승혜 (1풍경), 50x13cm, inkjet print, 2012



백예원 (Ship), 39x59cm, 예칭, 청콜레, 2009



소수빈 <Dotdotdot>, 60x20cm, c-print, 2014



봄눈 <불의 사계>, 14.5x30cm



서정연 <K-POP 심사위원 삼인방>, 4F, Watercolor on paper, 2014



서영철 <review>, 8x10inch, Archival Pigment Print, 2013



손민광 <좋은날>, 45.5x53cm,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2014



서병관 <Extinction S2>, 21x9x23cm, 철, 단조, 용접, 2011



손자희 <자히스>, 350x350x150mm, FRP, 락카,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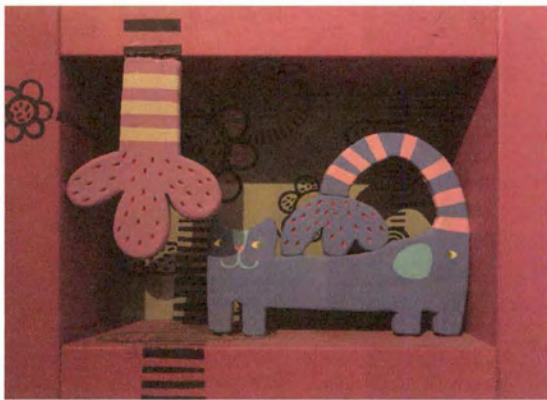
송유건 <막걸리 한잔 걸치니 좋구나>, 42x60cm, pigment print, 2014



송태화 <꿈꾸는 섬>, 27.2x40.9cm, Mixed media on canvas, 2013



손채수 <생명의 그물망>, 35x28x3EA, 2013



손현선 <고양이>, 35x27x10cm, 나무에 채색



신동선 <무제>, 40x40x55cm, 아크릴



신승녀 <자화상 나무뇌 딥티크(crane d'arbre diptyque)>, 26x34cmx2, 나무캔버스에 과슈, 먹물, 오일파스텔 등



시원상 <A Landscape in mind - 1973년의 계절>, 50x50cm, tempera, oil on panel, 2011



신봉철 <유리물방울>



신원삼 <化>, 20x30cm, 2013



심희라 <M-플레이보이 II>, 33,4x24,2cm, Mixed media on panel, 2011



안예환 <Way slowly>, 27,5x45cm



안순분 <무제>, 40x60cm



임수민 <홀,런>, 31,8x31,8cm, Acrylic on canvas, 2014



안재홍 <나를 본다-파랑새>, 30x10x40cm, 구리선, 나무, 2014



오수철 <松>



오영진 <정체성>, 74x45cm, photo



오은주 <포근한 정원>



오은희 <여행의머리 오름>, 31.6x40.8cm, oil on canvas, 2013



오혜련 <색동-Color of soul>, 45x45cm, Acrylic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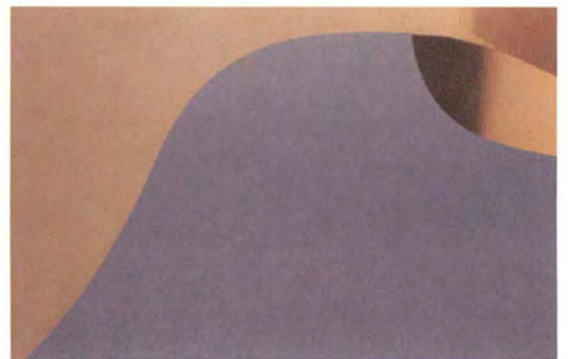
유계희 <민화를 찾아서>, 6F, oil on canvas, 2014



우상호 <crying-LOVE>, 50x50cm, acrylic on canvas, 2014



우무길 <도시>



유거상 <하모니>, 29x19cm



유지숙 <세상의 저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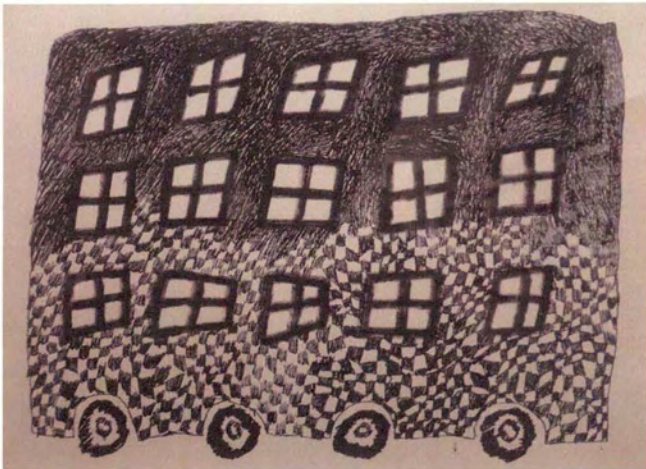
육경란 <The story-1>, 21x30cm, woodcu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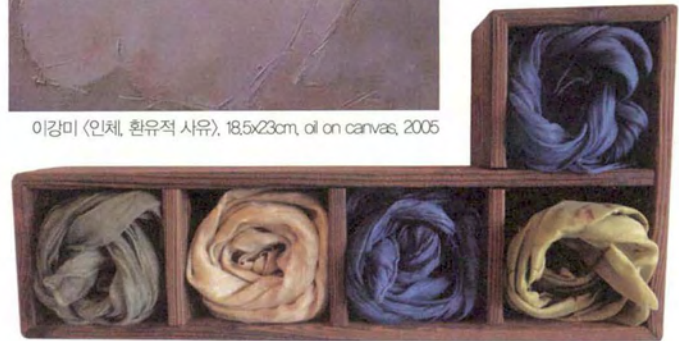
이건희 <화령전 뒷 길에서>, 34x37cm, 인두화



이감미 <인체, 환유적 사유>, 18.5x23cm, oil on canvas, 2006



윤선미 <네발달린 버스는>



윤희경 <청출어람(靑出於藍)>, 54.5x28x10cm, 실크레이온, 쪽물 천연염색



음현정 <呪文>, (30x30x4.5)x2, Acrylic on Canvas, 2012



이강자 <상천리 산수유마을>, 53x37cm, oil on canvas, 2010



이남희 <일상>, 21x30x2cm, 혼합재료



이다혜 <집 풍경>, 22.7x15.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4



이득현 <Rhizome-6>, 45x38cm, playdough, acrylic colors, chinese ink and matte varnish on canva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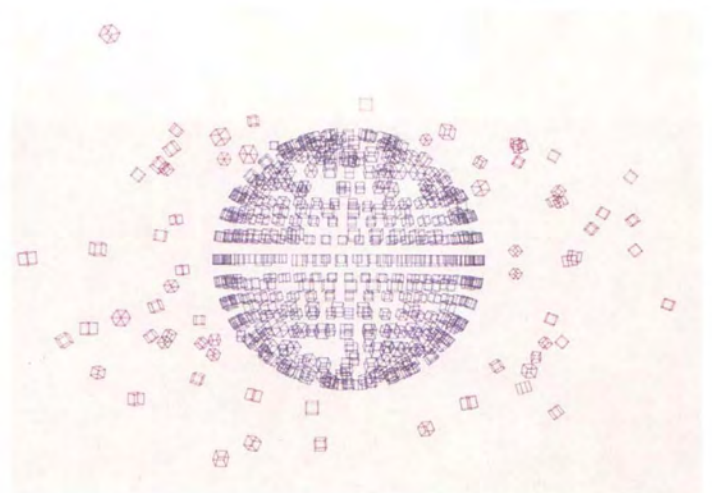
이동은 <wedding>, 31.8x40.9cm, acrylic and oil pastel



이사라 <숨>, 가변설치, 2009



이부강 <trace_reprint>, 43x54.5cm, mixed media, 2014



이상미A <break4>, 51x38cm, drawing on paper, 2013



이상미B <Noodles>, 22x22cm, Collagraph, chine colle each, 2014



이석기 <좌상>, 40x24cm, Oil on Canvas



이상미 <쿠로아~♡>, 4F, Watercolor on paper, 2014



이신애 <심상9(마음의소리)>, 24.2x33.4cm, oil on canvas, 2014



이선열 <금당산>, 46x36cm, 한지에 먹



이영길 <無何有-나비의꿈>, 72.7x26.5cm, 장치에 채색, 2013



이선욱 <휴식2014>, 38x25cm, watercolor, 2014



이오연 <철거지역 세류동사람들>, 10호변형, 판지에 아크릴, 2013



이우숙 <꽃밭>, 18.5x30cm,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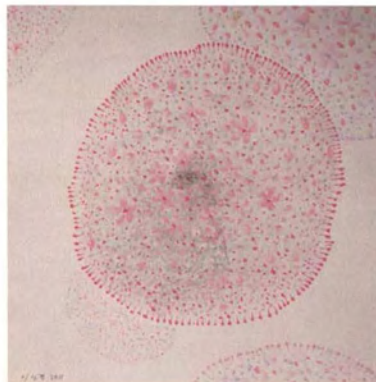
이운숙 <십자가의 길>, 10x10cm, 한지, 2000



이윤엽 <행궁의 봄>, 2004



이주영 <스위폰>, 6호, 한지에 유화



이임경 <꽃>, 30x30cm, 한지에 채색, 2011



이하 <귀여운 여인시리즈-파란피부 여인>, 20호, 혼합재료, 2013



임종길 <꽃집 플레리>, 19x27cm, watercolor on pap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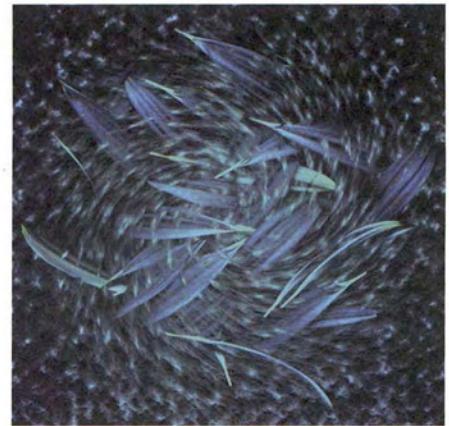
이해균 <사복의 겨울>, 53x38cm, oil on canvas, 2013



이혜경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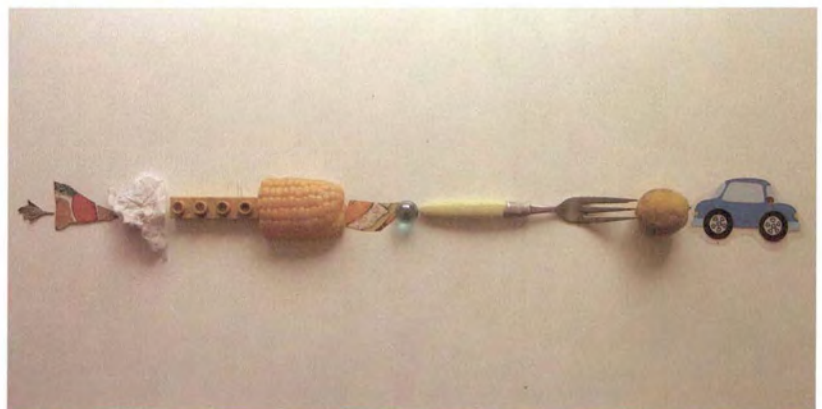
임미령 <red flower>, 41x32cm, oil on canva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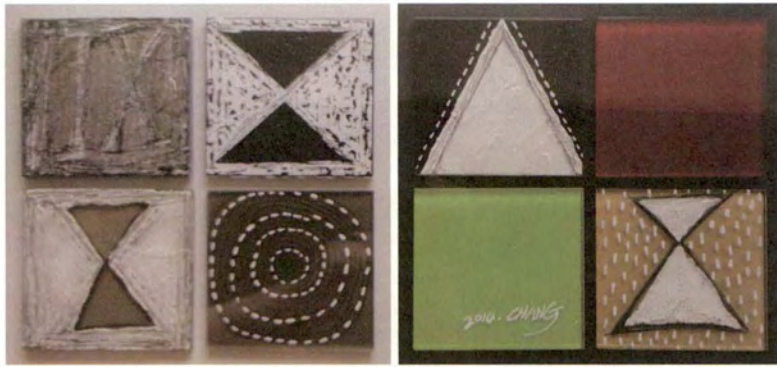
임준영 <New Fossils...22>, 43x53cm,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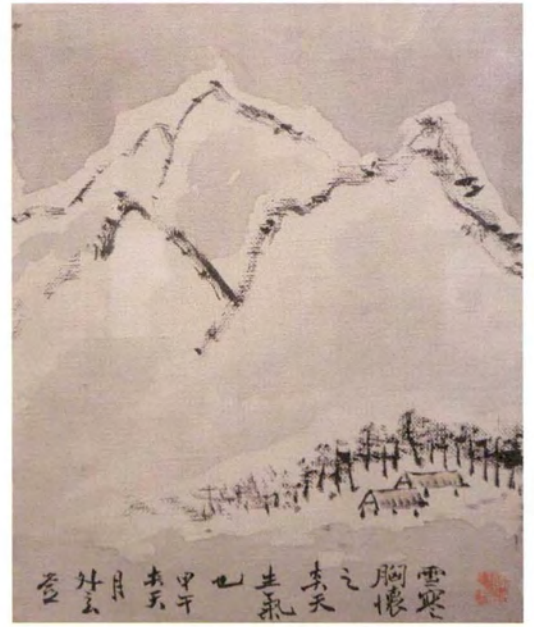
임승희 <행운소리>, 45x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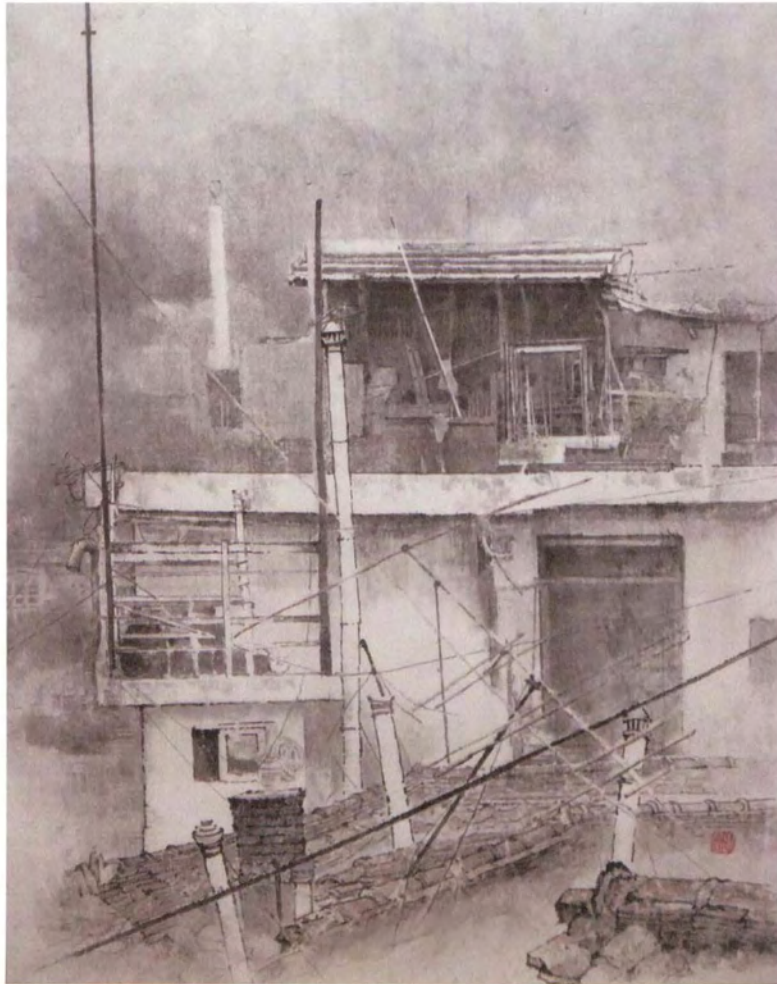
임은빈 <두상자>, 50x28cm, color print, 2011



장선영 <시간의 흐름>, 22.0x44.0cm, 혼합재료, 2014



장세훈 <세한도>, 21x26.5cm, 한지에 먹



전기욱 <수목도심풍경>, 40x50cm



장진영 <관계-Together 19>, 30x30cm, 한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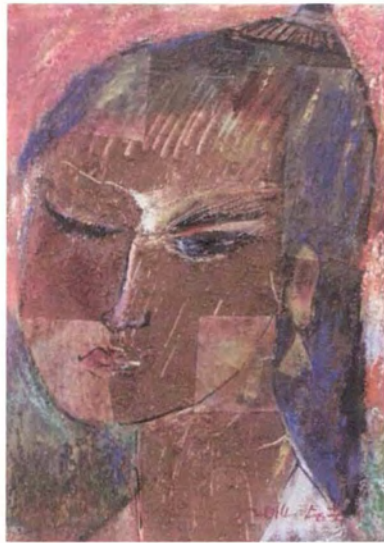
전경선 <새벽커피향>, 41x50cm, Painting on Almaciga Wood, 2012



장혜홍 <화양연화1415>, 면천, 염색물감, 아크릴물감, 스와로브스키 큐빅



전병구 <겨울>, 50x50cm, oil on canvas, 2011



정승국 <누나>, 1호F, 캔버스 혼합재료



전혜정 <팔달문>, 100x50cm, stainless steel, acryl, 2012



전성희 <어! 이게 뭐지?>, 23x45x22cm, 석고봉대, 실, FFP,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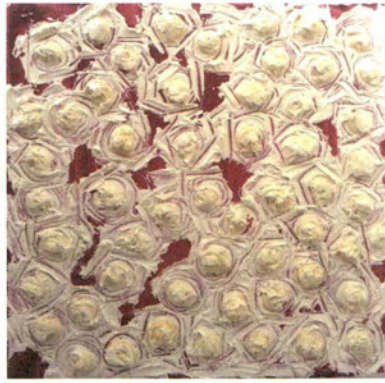
전옥 <꽃>, 37x25x34.5cm, stone, stainless steel, 채색



정범연 <Planet Aghar519>, 30x48cm, digital painting and digital collage, 2014



전원길 <목수수>, 37x37cm, oil on canvas, 2004



정인희 <이중성1>, 20x20cm



정인희 <이중성2>, 20x20cm



정혜련 <vitalown>, 45x38cm, 장지에 채색, 2014



정연지 <익숙한 풍경>, 40x40cm, 비단에 수묵묵연, 2013



정현희 <소녀>, 10x15cm



정현희 <할짝>, 38.3x26.2cm, Acrylic on Pape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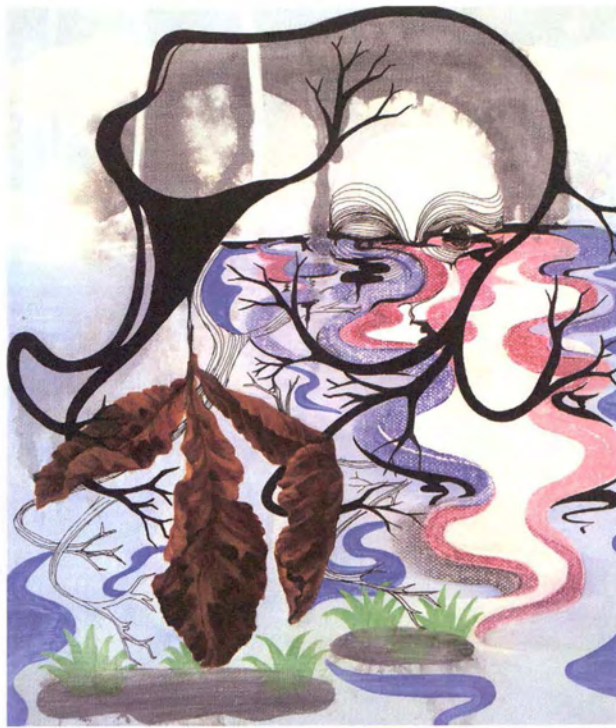
정현희 <무제>, 17.9x25.8cm, Acrylic on canvas, 2014



조덕상 <Maelstrom>, 각 25x15cm, 혼합재료, 2013



조성훈 <새벽 담배 사라갈 때의 원피스>, 55x23cm, oil on canvas, 2014



조미예 <untitled>, 24,5x30cm, Acrylic & Pen on canvas, 2012



조수영 <Moment>, 45,5x53,0cm, oil on canvas, 2012



조윤정 <虛想>, 35x35cm, 실크위에 산성염료, 2009



조영선 <Space I>, 24x24cm, oil on canva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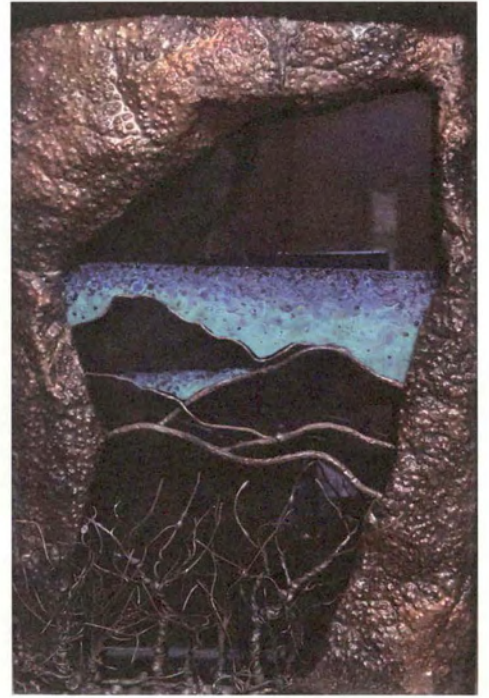
조영선 <Space II>, 27,3x45,5cm, oil on canvas, 2014



조은정 <미메시스>, 37.9x45.5cm, oil on canvas, 2009



천명철 <만남>, 26.5x49cm



지연신 <보리암에서>, 18x21cm, 2013



초이 <Touching Coleabo>, 44.5x27.5cm, 한지위에 혼합재료, 2014



주종수 <이미지 1405>, 60x45.5cm, mixed media



차진환 <돌-산-하>, 47.5x52cm, 혼합재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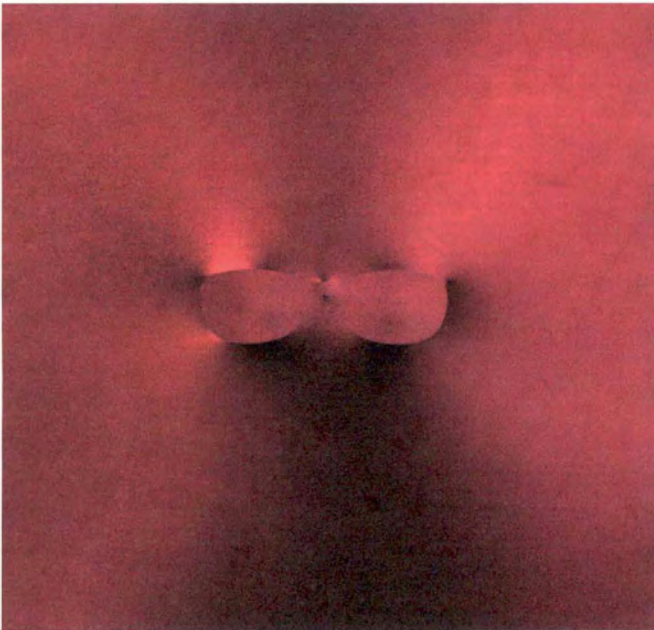
조주연 <Loose, lose!>, 33x24cm, Mixed media on paper, 2008



최경락 <락>, 93x53.5cm, 한지위에 먹, 2014



최보람 <그대가 보이는 풍경, 그대가 바라보는 깊은 그리움>, 10호(53x45.5), 2012



최미아 <빨간 안경(the red glasses)>, 35x35x5cm, 2013



최세경 <drawing>, 15x14cm, pen on PVC



최요한 <죽음4>, 1/7



최승일 <get out of-2014>, 53x53cm, 아크릴 혼합재료, 2014



최현식 <11월의 그리움>,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12



탁신문 〈치암마이의 2월〉, 10호P, oil on canvas, 2014



한다 〈6월의 축복〉, 10F(45.5x53.0cm), Acrylic on canvas, 2011



한상진 〈응시와 명상-흐르는 풍경〉, 캔버스 위에 아크릴, 2013



하정희 〈chaos 변형시리즈2〉, oil on canvas, 2014



한순주 〈思有...8〉, 10P, Mixed media



허병훈 〈들넉〉, 24x24cm, Acrylic on canvas, 2014



한태희 〈My room〉, 30x30cm, Oil on canvas, 2007



홍근영 <CUT series>, 각 21x14cm,
종이 위에 혼합재료, 2010



홍낙기 <명상>, 37x28x58cm, 석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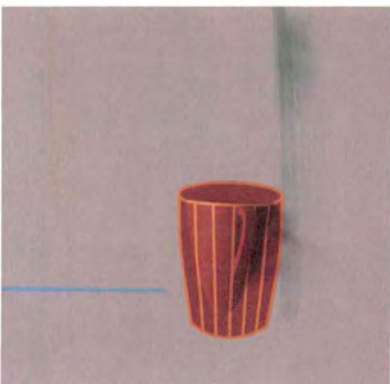
황희정 <회복에 대한 편린>, 45.5x37.9cm, Acrylic on paper, 2013



홍대의 <live...sound>, 32x32cm, 아노다이징 도금



홍형표 <시간의 흔적>, 48x63cm, Mixed media, 2014



황은화 <Another View>, 32.0x32.0x3.50cm,
Wood, Acrylic on Canvas, 2014



황보경 <모란>, 67.5x28.7cm, Acrylic on canvas

예술공간봄 개관기념 <폭탄(Bomb)>展

기획 김성호(미술평론가, 개관기념전 초빙큐레이터)

일시 2014년 6월 13일~7월 12일

장소 예술공간봄

참여작가 경수미, 김성배, 김운용, 김희곤, 유지숙, 이경호, 이윤숙, 이 탈, 임종욱

폭탄(Bomb)_해체로부터 생산으로

김성호(미술평론가, 개관기념전 초빙큐레이터)

이 전시는 대안공간 눈의 1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새로이 출발하는 예술공간 봄(Bomb)의 개관기념전으로 기획되었다. 이중의 주제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는 예술공간 봄의 네이밍(naming)은 그것의 음성적 차원으로부터 유발되는 3가지의 의미를 다음처럼 지낸다.

- 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출발점으로서의 봄(spring),
- ② 시각예술의 관람 행위로서의 봄(seeing),
- ③ 급격한 파괴, 해체로부터 생성되는 또 다른 막강한 힘의 근원적 생성력으로서의 봄(bomb)

이번 전시는 마지막 의미항, 즉 '폭탄'을 화두로 삼아 예술공간 봄의 개관전을 마련한다. 우리의 전시 주제인 '폭탄(bomb)'은 마치 축포를 올린 불꽃놀이의 '화약(火藥)'과 같은 원시적 폭탄으로부터 재건축을 위해 건물의 해체를 도모하고자 하는 '고성능 폭약(TNT)', 더 나아가 냉전시대 인명 살상용으로 만들어져 히로시마에 투척된 바 있는 전쟁기계로서의 '원자폭탄', 그 보다 더 강력한 메가톤급 무기로서의 '수소폭탄'에 이르기까지 축하와 향연, 재건과 복구, 전쟁과 폐해를 오고가는 긍정, 부정의 정신이 한데 뒤섞여 있다.

1950년대 TV의 위세에 놀려있던 영화가 헐리우드의 대규모 산업으로 조직화의 붐을 일으키며 등장시킨 블록버스터(blockbuster)라는 용어가 원래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 의해서 사용된 4.5톤급의 폭탄으로부터 유래했음을 상기할 때, 우리의 개관기념전 주제 '폭탄'(bomb)은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미심장하기조차 하다. 폭탄이 유발하는 폭발이란 운동은 우리를 쇠락과 침체의 장으로부터 활발한 생산의 장으로 이동시킨다. 마치 시가지의 한 블록을 모두 날려버릴 만한 위력을 선보였던 폭탄 '블록버스터'처럼 우리의 전시주제 '폭탄'은 순식간에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기존의 고답적 상태와 형세를 일거에 재편하는 폭발의 효과를 기대한다.

물론 우리의 폭탄은 있던 것을 깨부수고, 해체시키는 '파멸'을 종착지로 삼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필요하다면, 종국의 목적인 '생산'을 위한 과정'으로 삼을 따름이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의

로부터 긍정으로의 의미 전이(轉移)라 부를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전시 주제 '폭탄'에 부여된 지향점은 해체, 폐해, 멸망의 문자적 언어들로부터 부활하는 음성적 언어들이다. 그것은 절대자의 재림과 이상적 유토피아의 헛된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그것의 도래(到來)를 끊임없이 연기하면서 단지 오늘에 충실하려는 음성적 언어들의 수다스러움이다. 그것은 '폭발 이후의 파멸'이기보다는 그것을 딛고 일어난 생산, 즉 '폭발 이후의 생산'이다. 즉 우리의 전시 주제 '폭탄'은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적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시는 '생산 없는 최후의 유토피아'를 지속적으로 미루어두면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잉태하는' 이 시대 미술가들의 다양한 수군거림이라 할 만하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상기의 전시 주제는 지하1층, 1층, 2층과 마당, 옥상과 광 등 기존의 가옥을 바탕으로 리모델링된 공간 속에서 초대작가 9인의 해석으로 다음처럼 펼쳐진다.

일촉즉발의 폭발을 암시하는 폭탄 형상의 조각(임종욱), 폭발의 과정과 결과를 작가 특유의 해석으로 선보인 서정적인 설치(경수미), 조각체의 위협적 형상을 내면에 은닉한 채, '잠재적 폭탄'의 의미를 드러낸 의자 모양의 목직하고 산뜻한 조각(김운용), 덩어리부터 풀려가는 철조망을 허공에 띄어 올리고 바닥에 먹물을 입힌 물을 가득 채운 한 편의 묵시론적인 설치(김성배), 파괴, 해체를 조형의 언어로 삼아 해체 뒤에 생산된 인간의 형상을 담은 회화(김희곤), 신문담과 같은 텍스트를 바람으로 불어 일으켜 세우고 눅히기를 거듭하는 개념적 키네틱아트(이탈), 수집된 사물에 부여된 오랜 기억의 흔적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길어 올려, 기억폭탄으로 재생산하는 설치(이윤숙), 관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전제로 연신 뺨뺨기를 만들어 날리는 커뮤니티아트를 표방한 설치(이경호), 말 그대로 '꽃폭탄'과 같은 꽃의 찬란한 향연을 선보이는 영상(유지숙)

초대작가 9인의 생동감 있는 육질의 언어들이 이번 전시에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지켜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폭탄이 해체로부터 생산으로 전이하듯이, 이번 전시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대안공간 눈'의 해체적 중간 점검표가 되길 기대하며, 이 옆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술공간 봄'의 출발과 새로운 생산을 기념하는 멋진 축포가 되길 기대한다.



경수미

검은 무덤

무덤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들은 빛의 무리를 따라 그 속으로 상승한다.

이는 해체하고 파멸된 파편 속에서 생성되는 생명력을 담고 있다.



경수미 <끝도 시작도 아닌>, 가변크기, 닥섬유에 먹, 2014

경수미

/ cobby1023@naver.com

홍익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졸업 / 단국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개인전

2010년 끝도 시작도 아닌..... 이즈낫 갤러리

2009년 꿈꾸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유영 II / 대안공간 눈

2007년 꿈꾸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유영 I / 대안공간 눈 단원미술관 및 5회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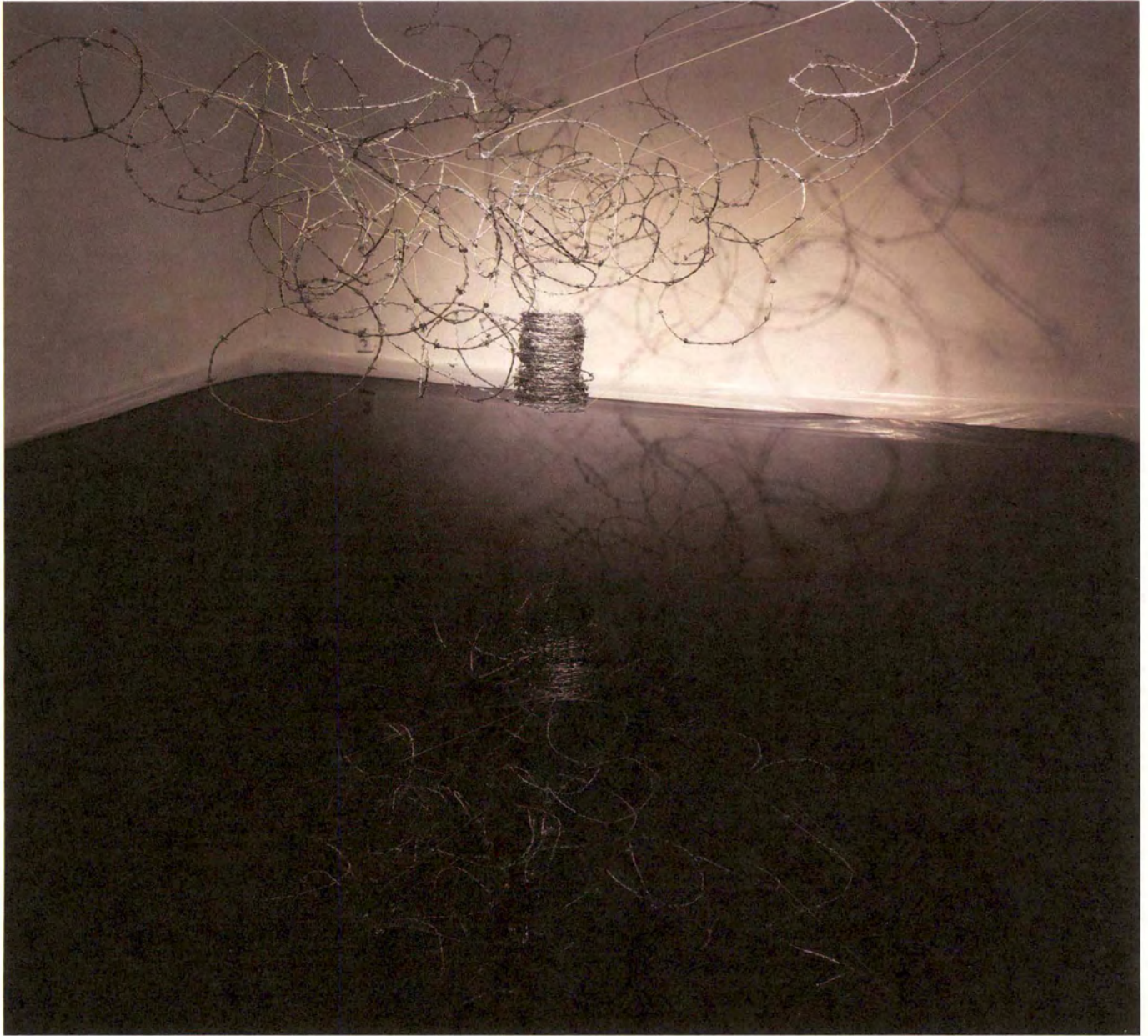
2012년 Twisted 17시 인턴기획전 / 성곡미술관

2011년 떠도는 집들-집으로 / '오픈하우스' PROJECT SPACE OZ 개관 특별기획전 / PROJECT SPACE OZ

2009년 행복한 상상 프로젝트+신나는 도시 만들기 / 아람미술관 및 45회

김성배

“나와 세계의 충돌과 융합, 그리고 관심 대상의 파괴와 새로운 생성의
현장이자 상징(성)을 작업하는 것은, 과연 현실 가능한 일인가..”



김성배 <아이로니/출입금지>, 가변크기, 철조망, 빛물과 먹물, 2014

김성배

/ shuroopk@hanmail.net

서울 광희중학교 졸업 / 수원 수성고등학교 자퇴&졸업 / 매산초등학교 입학, 서울 종로초등학교, 서울 광희초등학교 졸업

개인전

2006년 흑백논리(대안공간 눈)

2007년 우주대학 오프닝(실험공간 UZ)

2012년 그림그리기-21C 능행도 및 8회

단체전

2012년 생각여행-길 떠난 예술가 이야기(경기도미술관)

2013년 완편차-형님(대안공간 눈)

2014년 2014 AR TOWNS(부산 벡스코 2전시장) 및 200여회



김운용

어떻게 볼 것인가? bomb이라는 명제 언어의 유희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기존의 작업 방식을 고수하기 위한 작가의 관점에서 동의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본 작가는 본다는 개념에서의 봄을 선택하며 흔히 볼 수 없는 사물의 내부공간을 만들어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에 물음표를 던져본다.



김운용 (M-2014613), 가변설치, 철, 2014

김운용

/ wyss28@naver.com

개인전

2003년 1회 개인전 Metaphor 고운미술관

2006년 2회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단체전

2013년 우리동네 조각프로젝트(수원), 아트 자연미술 워크숍(공주)

2012년 The 38 international art camp nazarea 2012(루마니아)

a 38-ik gyergyoszarhegyi Művésztelep 2012(루마니아)

Międzynarodowym Plenerze Rzeźbiarskim puszcza Zielonka 2012(폴란드)

김희곤

나의 이미지드로잉은 존재를 위한 투쟁이다. 신경질적이고 파괴적인 드로잉의 천착을 통해 존재를 구속하는 관념적 이미지는 파괴된다. 비로소 안과 밖, 밝음과 어둠이 하나이며 붉음과 푸름이 서로를 기대선 존재의 원형을 회복한다. 나는 뚫린 공간을 통해 빛을 느끼기도 하고 풍경을 본다. 풍경 또한 나를 바라본다.



김희곤 <세상의 모든 뼈뼌을 위한 드로잉>, 775mm x 1075mm, 4pieces, acrylic on Paperboard with light, 2014

김희곤

/ heegon23@hanmail.net

개인전

2001년 한전프라자 기획전(서울)
2005년 오프라갤러리 개관기념초대전(서울)
2006년 베아트홀 기획초대전(평택) 및 5회

단체전

2013년 AR아트페스티벌(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008년 창원아시아미술제(성산아트홀)
2002년 LA 국제아트페스티벌-동방의 빛(Angel Gate Culture Center) 외 100여회



유지숙

봄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봄날의 이미지들.....

스마트폰이 꽃들을 비집고 다니며 근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속도감과 원근감에 의해 마치 나른한 봄날의 이미지, 봄을 보내기 아쉬워하는 마음, 현실이 초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겨울의 눈송이들이 하얀 꽃송이로 변하고 하얀 꽃송이들이 colorful한 꽃들로 변하면서 시간은 부유하고 흐른다.



유지숙 <봄은 지나가고 다시 온다.>, 452, 싱글채널, 2014.6

유지숙

/ vorang@hanmail.net

서울여자대학원 조형학부 신조형 졸업 2002년

개인전

2010년 5회 10 Years Self-portrait, 이즈 낫 갤러리, 서울

2007년 4회 안방극장, 대안공간 눈, 수원

단체전

2013년 '벚꽃인가' 젠더의 눈으로 본 대안영화-한국영상자료원, 아이공 극장, 서울

2012년 Comostory 'jump'-SK타워, 대전 SKT 둔산 사옥

디지털 퍼니처전-Artocenter Nabi, 서울

NOMADIC REPORT,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1년 육감마사지, 아트센터 나비, 서울

한국현대미술의 스펙트럼, 대만 카오슝 시립미술관, Taipei

시간의 창,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0년 80일간의 세계일주, 수원미술관, 수원

INTERMODEM, MODEM, Hungary

2009년 FEAVS2009, Osaka, Japan

싱글채널비디오 : 도시,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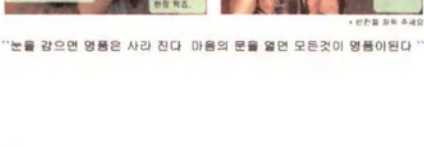
2008년 미디어로서의 작가, 갤러리 정미소, 서울

이경호

십년전 이라크로 파병하는 자이툰 부대가 포 쏘는 훈련대신 빵 과자 튀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신문 지면을 통하여 보았다. 포탄대신 전장에서 빵튀기를 튀겨 나눠주는 훈련을 하는 군인 참 인상적이었다. 십년전 빵과자는 눈에 보이는 명품과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 거짓미 디어, 영성체, 죽음의 행렬, 복제된 죽은달의 대량생산, 광주의 버려진 시신들 등을 얘기했다. 오늘의 빵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사랑과 나눔의 확장이다. 내가 눈을 뜨야 세상이 보인다. 실천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싶다.



Moon light Sonata 2004



"눈을 감으면 영혼은 사라진다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것이 영혼이된다"



Manna 2014 outside



Manna 2014 Inside

이경호 (Miracle 하늘에서 내린 만나), dimension variable, 빵튀기, 봉다리, 영양쌀, 빵튀기기계, 손거울, 어망, 잠자리체, TV 모니터, 조중동신문, 현수막, 2004~2014

이경호

/ khleevideo@empas.com

프랑스 파리 세르지 국립고등예술학교 졸업 (D.N.S.E.P)

- 2014년 K-P.O.P. 한국현대미술전 Taipei MOCA 타이페이 국립현대미술관
- 2013년 디지털로드 융인한국미술관
- 2012년 몽유_미술적 현실 과천국립현대미술관
- 2011년 (해피원도우) 아트센터나비
- 2010년 '오월의 꽃'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 기념전(광주 시립미술관)

- 2008년 "YOUNIVERSE" 세비아 비엔날레 스페인
- 2007년 "Thermocline of Art" 아시아 현대미술전독일 ZKM 미술관
Exhibition of Mestna Galerija Ljubljana(뉴트리아나, 슬로베니아)
- 2006년 상하이 비엔날레(중국 상하이) 및 다수
- 2004년 광주 비엔날레 및 다수





이윤숙

장광으로 사용했을 한 두평 남짓한 작은 반지하 공간에서 나는 이 집의 역사, 오랜 삶의 흔적을 반영하는 덩어리를 발견했다. 고스란히 삶과 역사가 응축된... 쾌쾌한 냄새와 부식된 질감은 묘하게도 오래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베어져 나뒹굴던 참나무를 전시장으로 끌어 들인 '참 거시기'와 많이 닮았다.



이윤숙 <이 집의 흔적들 - 기억의 공간>,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4

항아리폭탄

어머니의 전유물이었던 항아리

오랜 기간 사용했던, 그러나 지금은 버려지고 있는 그 항아리 속에는 폭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이윤숙 <항아리폭탄>, 가변설치, 항아리, 2014

이윤숙

/ spacenoon@hanmail.net

성신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07년 명상-삶에 대하여, 큐브갤러리, 서울 / 대안공간 눈, 수원

2004년 숲,심, 소나무s갤러리, 안성

2000년 대화년의 기쁨이여, 슈룸조형연구소, 화성

1998년 1998년의 자소상, 갤러리 아트넷, 수원 / 슈룸조형연구소, 화성

1997년 명상-삶의 에너지기, 갤러리 아트넷, 수원

1996년 자연의 축-모태, 비탕골미술관, 서울 / 슈룸아트넷, 수원

1993년 참아래 참나무, 장안갤러리, 수원 / 비탕골미술관, 서울

1990년 모태-음과 양, 소나무갤러리, 서울

1987년 자유에의 회귀, 비탕골미술관, 서울

1985년 음과 양, 청년미술관, 서울

단체전 · 그룹 기획 초대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인천국제여성비엔날레 등 400여회 출품

공공예술프로젝트

행궁동역사문화마을만들기-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행궁동레지던시) 총감독

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 '골목길GMD행궁동을 걷다' 총감독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총감독

이탈

총알이나 폭탄 등은 전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인식된다. 이것은 근대 이후 전쟁에 대한 관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폭탄 등을 사용해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알이나 폭탄은 이러한 인간의 분쟁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방아쇠든 점화 스위치이든 인간의 작동을 떠난 폭탄이나 총알은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 또한 폭탄 스스로는 전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날아든 폭탄은 전쟁을 해야 할 최초의 목적까지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쟁과 폭탄과의 관계는 예술작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 구조와 흡사하다. 예술은 전쟁이나 평화 등에 대해 발언하기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은 현실의 전쟁을 억제하거나 평화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럼으로 예술표현은 관념적이다. 인간이 필요로 만든 총알이나 폭탄이 분쟁이나 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이긴 하지만 폭탄이 전쟁을 해야 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듯 예술작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메커니즘은 예술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번 작품의 개념은 THIS WORK HAS NO IDEOLOGY 이다. 이

는 위에서 열거한 개념을 통해 도출된 문구이다. 이것, 작품, 있다, 없다, 이데올로기 등은 각 각 다른 의미로 개념화 한다. 그러나 단어들이 조합하여 이 작품에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라고 읽을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예술작품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묻게 된다. 이것은 예술의 목적이나 작품이 당면한 시대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어느 시대나 당대의 예술표현은 시대를 닮았다. 그럼으로 본인은 전시주제인 bom(폭탄)을 통해 이시대의 단편적인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이든 개념이든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거나 읽을 수 없게 해체된다면 의미가 상실된 기호로만 보이게 된다.

THISWORKHASNOIDEOLOG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것은 해체된 것도 해체된 이후도 아닌 지금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만 믿기를 권유한다.



이탈 <THIS WORK HAS NO IDEOLOGY>, 2400x300x150mm, 가변적 설치, 소형시코로판 21개, 적외선 센서, 릴레이, 인터랙티브 장치, 2014

이탈

/ 2talee@gmail.com

경기대학교 회화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1년 거미의 성(The Castle Of The Spiders Web), 유네스코 에이모트,
2009년 나는 기억해야 할 의무가 없다. 海市,
2008년 To Stand in the Desert, 상해 전청갤러리 외 6회 개인전

단체전

2014년 이원일의 창조적 역설전(쿤스트 독)
창작미술협회전(세종문화회관)
다카르 비엔날레(세네갈, 다카르)

2013년 비영리전시공간국제교류네트워크-폴란드전(우치, 폴란드)

Interackje, (피오트르코프 트리부날스키, 폴란드)

Looking at my future(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JCCAC, 홍콩

플랫폼 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인천 아트 구락부, 인천아트플랫폼

After(city), JCCAC, 홍콩

제7회 타쉬켄트 비엔날레(타쉬켄트, 우즈베키스탄)

기타 단체전, 공연, 기획 150여회

임종욱

BOMB이라는 애기에 단순히 폭발하는 순간의 밝은 빛을 생각하게 되었고, 폭탄 형태의 물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이용해 포현해 보려한다.



임종욱 <무제>, 60x60x60cm, 스텐레이스, 스틸, 용접, 2014

임종욱

개인전

2013년 동탄복합문화센터 기획초대전, 화성
2011년 인사갤러리, 서울
2008년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 수원

경기대학교 졸업, 동대학원

단체전

2011년 GROUP SHOW(Gallery 2, 서울)
2010년 Hows it going(호연 갤러리, 수원)
2009년 2인전(Stone & Water, 안양)

봄눈의 <봄의 사계>展

기획 봄눈

일시 2014년 6월 13일~7월 12일

장소 예술공간봄 1층카페

참여작가 봄눈

우리는 봄의 사계를 통해 한 인간의 서사를 그려내고자 합니다. 사계절로 은유되는 봄의 역사는 누구나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며 겪는 일련의 과정일 터입니다. 피사체로서의 봄은 작가 자신이기도 한 동시에, 사랑을 체험하는 모두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전 홀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봄(겨울)이 눈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봄) 인도의 철거운 더위를 마주하며(여름) 때론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가을)은 보편적 연애의 서사에 맞닿아 있을 겁니다. 사계절을 거쳐 다시 도달하는 봄의 지점에서 우리는 관객들에게 겨울을 나지 않은 또 다른 봄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대안공간 눈이 10년 동안 행궁동에서 그들만의 역사를 써내왔고, 새로이 예술공간 봄을 맞이했듯, 인간 봄눈 또한 2년 반 동안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이처럼 대안공간 눈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역사가 있을 터, 모두의 사계절에 따뜻한 봄이 방문하길 바라봅니다.



봄눈 / springnoon

스무 살 봄과 스물다섯 눈이 만들어내는 보편적 연애사. 일상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봄과, 매 순간 일상을 기록하는 눈이 만나 사진을 찍고 글을 씁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가 모두에게 가닿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판

<봄눈>, 2012년 2월 소규모출판
<봄의 사계>, 2014년 3월 소규모출판
<봄눈 인도>, 2014년 6월 소규모출판

전시

봄전, 2012년 5월 카페 심, 대전 / 봄눈 인도, 2012년 12월 KIV COFFEE, 대전
봄눈 인도, 심, 2013년 1월 카페 심, 대전 / 봄눈 인도, 단꿈, 2013년 2월
Droplet in Cafe, 서울 / 봄눈 인도, 길 위의 K, Mr. Egg Hostel, 부산
봄눈 인도, 봄눈, 도시여행자, 대전



다시 봄



겨울 1



10주년 축하공연

일시 2014년 6월 13일 오후 6시

장소 대안공간눈 잔디마당

내용 1. 김순애와 소리통의 비나리 외 민요

2. 복수동경로당 어르신들의 합창





대안공간눈 연혁

- 2014** - 예술공간 봄 오픈기념전; 폭탄전, 봄눈전, 축하공연
- 대안공간 눈 개관 10주년 기념전; 비빔밥 뷔페
- 2013** - 대안공간 눈 기획전시; 개인전 - 26회, 단체전 - 10회
- 정월 행궁나라 갤러리 기획(개인전; 12회)
- 생태교통수원 2013; 행쇼마켓기획 진행
- 생생인문학당 운영
- 문화바우처; 올챙이 - 기획 진행
-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2013 기획 진행
- 별별예술프로젝트 '뽕이요~뽕'
-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키친
- 보물섬 프로젝트; 국화도
- 원도우 갤러리 기획 전시 12회
- 들썩들썩 골목난장, 재능기부프로그램
-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특별기획전
- 행궁동레지던시 입주작가전 및 오픈 스튜디오 2회
- 2012** - 들썩들썩 골목난장, 재능기부프로그램 디기둥
- 대안공간 눈 기획전시; 개인전 - 29회, 단체전 - 8회
- 정월 행궁나라갤러리 전시기획 12회
- 수원시 문화상(예술부문); 이윤숙대표 수상(11.5)
-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2012
- 원도우 갤러리 기획전시 12회
- 문화바우처사업; 공간틈새 기획 진행
- 화성문화제 수원천 공공예술프로젝트 수원천꿈길 총감독
- 골목에서 영화제 '오점균 감독의 영화퍼포먼스'
- 행궁동레지던시 입주작가전 및 오픈 스튜디오 2회
-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 운영위원 조직
- 행궁마을안내소 및 행궁숨씨아트샵 · 카페 조성 사람이야기 대안공간 눈
-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특별기획전
- 2011** - 삼일상고와 함께하는 들썩들썩 골목난장
- 재능기부프로그램
-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공모 우수상 수상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개인전 - 30회, 단체전 - 10회
- 정월행궁나라갤러리 전시 기획 12회
- 제6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11.11)
-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2011
-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 진행; 골목길 G.M.D 행궁동을 걷다
- 원도우 갤러리 오픈
- 마을기업 행궁숨씨 행안부 지정
- 2010**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개인전 - 31회, 단체전 - 13회
-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한국문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공간지원 시작
- 대안공간 눈 카페 오픈
- 골목도서관 보통책방 오픈
- 자기만의 방 오픈
- 정월행궁나라갤러리 전시 기획 3회
- 컨테이너 갤러리(내건너 창작마을)
- 2009**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개인전 - 27회, 단체전 - 7회
- 행궁동 레지던시 프로그램 제안 및 총감독
- 공장단지내 특별한 선물꾸러미(내건너 창작마을)
- 2008**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개인전 - 33회, 단체전 - 5회
-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컨테이너 북카페(내건너 창작마을)
- 2007**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개인전 - 33회, 단체전 - 10회
- 내건너 창작마을 설립 오픈 스튜디오
- 행궁길발전위원회 참여
- 2006** - 대안공간 눈 기획전시; 개인전 - 23회, 단체전 - 10회
- 대안공간 눈 1주년 기념 행사 및 후원회 조직
- 2005** - 대안공간 눈 기획전시; 개인전 - 12회, 단체전 - 3회
- 대안공간 눈 개관 기념전(4.23)
- 2004** - 집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작업

2014년 대안공간는 전시일정

전시기간	1전시실	2전시실
01.01 - 02.20	대안공간는 2013년 아카이브전	윤선미의 네 발 달린 버스 -연장전
02.21 - 03.06	김필래의 김필래 개인전	김일지의 앙앙영영웅전
03.07 - 03.20	전병운의 무지개의 끝전	범진용의 생각이 말한다전
03.21 - 04.03	장새미의 정물 숲전	이도의 이중복도(double corridor)전
04.04 - 04.17	신승녀의 응시하다. 보이지 않는것을 보다전	주인수의 화기에애전
04.18 - 05.01	배중오의 設計(圖)설계도,ver.1/6전	앙드레의 The time of Unrememberable Being전
05.02 - 05.15	하정희의 응답전	이계정의 욕망으로가는 자동차전
05.16 - 05.29	박김형준의 행공동내전	명윤아의 imagine-상상전
05.30 - 06.12	김주희의 추억, 그 기억의 잔상전	김명아의 사람+사람전
06.13 - 06.26	〈특별기획전〉대안공간는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비밀밥뷔페 전	
06.27 - 07.10		
07.11 - 07.24	신재은의 유토피아전	유아름의 존재의 기록(Record of Existence)전
08.22 - 09.04	손정희의 Beyond Books전	키타요코전
09.12 - 09.25	서병관/인경/한지윤/정효경 전	손현선의 ZOO전
09.26 - 10.09	〈특별기획전〉내맘대로 스튜디오전	
10.10 - 10.23	행공동 사람들 2014 - 주민숨씨전	홍근영의 단순하지만 복잡한 감정전
10.24 - 11.06	최미아전	손자희의 사회's World전
11.07 - 11.20	김민지의 다가오는 멜랑콜리전	오영진의 소통의 아장스망전
11.21 - 12.04	수기사의 수원(2014)글목이야기전	김주현의 레알리즘전
12.05 - 12.18	황희경의 Civilization전	김윤아의 조각기억전

전시기간은 2주 단위로 작품설치, 작가와의 만남, 작품반출이 이루어지며 월요일은 휴관, 12시부터 19시까지 오픈하고 있다.

Exhibition period : every 14 days

Set up and placement of artworks, Meeting with artists, Carry our of artworks,

Tuesday to Sunday 12:00~19:00 Closed on Mondays.

2014 윈도우갤러리, 정월행궁나라갤러리 전시일정

	윈도우갤러리(북수동벽화골목)	정월행궁나라갤러리(행공동주민자치센터)
1월	최효진展	김동휘展
2월	최리나展	최정숙展
3월	이상미展	이상미展
4월	하정희展	왕효남展
5월	박정란展	박정란展
6월	대안공간는 10주년기념전	손정희展
7월	이진희展	이우현展
8월	김미정展	이건희展
9월	김소연展	임진실展
10월	자수내(김영미)展	
11월	옥수수미술展	
12월	박소영展	

2014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 전시일정

전시일정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행궁동레지던시 1층 전시실)
03.21 - 03.31	행궁동레지던시 6기입주작가전
04.06 - 04.27	김찬송展
05.01 - 05.20	배중오展
05.21 - 06.05	이지훈展
06.09 - 07.20	최경락展
07.22 - 07.31	수미협展
08.16 - 08.31	박소영展
09.01 - 09.17	손채수展
09.18 - 10.01	김주현展
10.02 - 10.15	초이展
10.16 - 10.29	수화기展
11.11 - 11.20	김은영展
11.21 - 11.30	행궁동레지던시 6기입주작가전
12.01 - 12.10	문해성展
12.11 - 12.20	이건희展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전

대표 · 총감독	이윤숙
관장 · 총괄진행	김정집
실장	이문숙, 이윤숙
기획	김성호, 이사라, 봉눈
코디네이터	이사라, 백민영
어시스턴트 코디네이터	김건
진행보조	아주대학교 자원봉사자
디자인 · 인쇄	디모브
촬영	김지식, 천명철, 남기성
교정	이윤숙, 김정집, 이사라
발행인	이윤숙
발행일	2014. 7

후원



후원해주신 분들 팔달구, 행궁동, 행궁동주민자치회, 성일칼국수, 벽화마을소풍가는날, 한일기획, 수원미술협회 홍형표, 성신여대총동문회 김한란, 신영순, 후창기획, 좋은집만들기 이상신, 김 종합건축사무소 김상연, 수원도시디자인과 김철우, 최호운, 북수동경로당, 무궁화문구 윤희경, 천명철, 남부희, 김수철, 김지식,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이사장 김충영, 서울미고이사 박우철, 이재영, 시장과사람들, 시인과농부 행궁동레지던시 6기 입주작가 일동, 김태철, 김성배, 김순애, 박지현, 최경락, 골목집, 수원시부시장 이재준, 박영순(북수동 주민) 용성통닭, 연포갈비, 세계사, 김웅수, 수원지기학교, 장안부동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 문용광, 김혜영, 경기서적 황군자 주인수, 눈 후원회장 김인숙, 김진영, 정용식, 전해정, 오채환, 진순애, 수원문화재단대표 라수홍, 이흥선, 오마리아, 박베로니카, 이현숙, 한양섭, 최경락, 김술, 황인성, 한옥자, 모던디자인, 진길만, 김화정, 안대훈, 오정숙, 장세훈

발행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82-6

전화 및 팩스

031-244-4519

E-mail

spacenoan@hanmail.net

웹사이트

www.spacenoan.co.kr

www.facebook.com/artspacenoan

www.cafe.daum.net/artspacenoan

©대안공간 눈, 2014

* 이 책에 수록된 작품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저자 및 대안공간 눈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82-6
031-244-4519
spacenoon@hanmail.net
www.spacenoon.co.kr
www.facebook.com/artspacenoon
www.cafe.daum.net/artspacenoon

후원

